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교회의 꿈!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종교개혁 이후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시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까? 지천에 교회가 널려있는 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2011년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교회의 꿈!”이다.

필자는 건강한 교회는 공동체성, 일상의 제자도, 공공성, 공교회성 이 4가지를 지향하고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라 생각한다. 또한 이 4가지를 시행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교회를 지향하게 된다. 한 가지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 더함공동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겠다.

첫째, 공동체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교회가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말이다. 교회는 한 지체로 한 몸이며 하나다. 하나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제이다. 하나님과 신자들이, 목사와 신자들이, 신자와 신자들이, 교회와 지역사회가, 교회와 시대적 아픔과 교제하는 것이다. 교회의 1차적 사명은 신자들이 서로 신앙과 삶을 나누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자 개인의 성숙과 교회적 사명이 시작된다.

하나님과 신자들이 바르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기도와 순종이 중요하다. 더함공동체는 신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책임 있게 행하도록 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매일성경)을 통해 성경을 묵상하고, 한 주간 묵상한 본문으로 금요기도회와 주일예배에서 설교한다. 그리고 설교한 내용으로 소그룹인 사랑방 모임에서 다시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연대기 순서에 따라 성경을 1년1독할 수 있도록 성경읽기표를 자체 제작해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한다. 수요일 오전/오후에는 성경공부반을 개설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개관을 꾸준히 공부한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들간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것이다. 소그룹인 '사랑방 모임'은 더함공동체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매 주일 오후 사랑방 모임을 시행한다. 사랑방 모임에서는 그날 설교를 중심의 말씀나눔, 삶나눔,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더함공동체는 1년에 4회 '사랑방별 예배' 주일을 정하여 놓고 각 사랑방끼리 흠어져서 학원, 카페, 사무실 등을 빌려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를 통해 목사가 주도하여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음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게 한다. 또 1년에 2회 일반성도 설교 주일을 시행해 주일예배 설교를 일반성도가 시행한다. 이 또한 성도들 스스로 만인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일예배 중에는 1년에 4회는 예식에 따라 '성찬식'을 시행하고, 그 외 매 주일예배 중에는 돌아다니며 서로 떡과 잔을 나누며 인사하고 교제하며 격려하는 '애찬식'을 가진다. 이를 통해 한몸 됨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된다. 공간이 협소해 따로 예배하고 있는 유치부, 초중고생들과는 2개월에 1회 정도 어른들과 연합예배와 행사를 가짐으로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어지간한 행사에는 청년뿐 아니라 아이들도 참여하게 한다.

교회 운영에 있어 교제와 소통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신본주의를 시행한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신본주의를 바르게 시행하려면 사람끼리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경을 조명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성령은 목사나 특정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와 공동체에 역사하는 성령의 조명과 분별을 찾아 가는 것이다.

더함공동체는 '교인총회'가 전 교인이 참여하는 가장 상위 회의체이며 직분자들이 참여하는 '직원회'가 있다. 실무 회의체로 행정기구인 '운영위원회', 협력기구인 '목회협력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정된 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수행한다. 구성원은 목사, 장로는 당연직이고, 교인총회를 통해 선출된 6명의 팀장(예배새가족팀, 일반봉사팀, 교육사역팀, 전도선교팀, 교회개혁협력팀, 사회적책임팀)과 청년대표로 구성된다. 여성에 대해서는 할당제를 시행하는데 자연스럽게 여성이 적절히 선출되어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없다. 목사는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장로가 2인일 때 장로 중 1인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장로가 1인일 때는 호선하여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장은 분기 1회 시행하는 직원회(권사, 목사, 장로, 집사)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직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운영위원회는 재논의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목사는 교인총회의 의장이 된다. '목회협력위원회'는 목양을 위한 협력기구로 권사, 목사, 장로와 사랑방섬김이들로 구성된다.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목회 계획에 대해



이진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인천더함공동체 교회 목사이며,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운영위원이자, 교회 2.0목회자운동 실행위원이다.

의논한다. 목회 계획과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둘째는 일상의 제자도이다. 바른 교리와 전통, 성경적인 제도와 적절한 예배당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회는 결국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이 교회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인 사람들 즉, 신자들 개인이 건강하다는 것이다. 신자 개인이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역을 할 뿐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들은 교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직분자이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아내이며 부모이고 자녀이다.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고 아내인가, 어떤 부모이고 자녀인가 바로 건강한 신자됨의 기준이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이고, 사회에서는 사회인이며, 나라에서는 국민이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는가가 중요하다. 신자들 개개인이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에 따라 일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일상의 제자도이며 그것이 교회 건강의 지표이다.

셋째는 공공성이다. 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내 교회 주의” 또는 “우리 교회 우상”에 빠질 수 있다.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것이 익숙하고 너무 좋은데, 정작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헤세드)과 평화(샬롬), 공평(미쉬파트)과 정의(체다크)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시대적 아픔에 동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곳,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더함공동체는 교회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다.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달아두는 전통적인 예배당이 아니라 '교육문화공간 담쟁이숲'이라는 간판을 달고 내부 인테리어도 교육문화센터에 걸맞게 단순하고 세련되게

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에 무료로 개방된다. 비영리 단체의 모임이나, 선교단체, 학생단체, 교회들이 수시로 사용한다. 1박 모임까지 가능한데 매년 평균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40평의 작은 공간이었고, 지금은 40평과 70평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교회 공간을 이런저런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사역을 통해 문턱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비신자들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처음부터 공공시설을 만들어 아예 문턱을 없애자는 취지였다. '담쟁이숲'은 현재 별도 법인을 설립 준비 중이며, 보증금은 전액 기부되어 담쟁이숲 소유로 분리, 관리될 예정이다. 교회는 월세 및 관리비를 내며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셈이다. '담쟁이숲'은 봄, 가을에 아카데미를 열고 성경, 인문학, 독서모임, 공연, 포럼 등을 시행하고 있다. 좋은 강사를 모셔와 좋은 강의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함공동체의 “사회적책임팀”에서는 지역사회 소외/빈곤 계층을 지원하는 사역을 담당하며, 정의, 인권, 평화, 환경, 통일 등 사회 공공적 이슈에 기독교인으로서 반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 활동도 하고있다. 이를 위해 1년에 3회 절기헌금은 전액 외부 사역을 위해 후원하고, 가정마다 사랑의 저금통을 나누어 북한 어린이 돕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1인 1단체(기독단체나 시민단체)에 가입해 시민적 삶을 살도록 권유한다. 지역에서는 지역교회들과 연합해 1년에 2회, 부활절과 성탄절에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연합예배”를 드리고 참가비 및 헌금 등 수익금을 고난받는 이웃에게 전달한다.

넷째는 공교회성이다. 개신교는 가톨릭과 달리 만인제 사장과 개교회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주적 교회의 일원인 공교회성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오순절 이후 성령에 의해 시작된 신약 교회의 전통과 종교개혁 이후 시작된 개교회회의 제도 안에 한몸 된 일원이다. 우리 교회만 소중하고 우리 교회만 건강하다는 “내 교회주의”, “우리 교회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공교회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이미 노회/지방회, 총회/교단으로 이루어진 교파적 공교회와 교파간 연합을 통한 공교회성을 지키기 위

해 노력해왔다.

문제는 교회의 대형화이다. 한 교회의 대형화는 그 교회 목사를 노회장, 총회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치리권을 무력화시켜 공교회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공교회성의 무력화는 소위 브랜드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교회의 폐해를 지적하며 교회 갱신, 성경적 세계관 공부, 제자훈련 등을 내세우며 성장한 교회들이 유명해지고, 목사는 스타가 되었다. 이런 교회에서도 부교역자 등을 내보내 개척하거나 분립/분가하며 그 교회 명칭과 교회 철학과 운영 방식을 그대로 이식했다. 이로 인해 공간은 분리되고, 담임목사도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본 교회에 속한 지성전, 지교회, 브랜드교회가 되었다. 이는 노회/지방회, 총회/교단의 치리권을 무력화시켜 공교회성을 훼손한다. 부패한 대형교회에 맞서 일시적으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일하게 부패하여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다.

목사와 지역교회는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교리와 윤리 문제를 끊임없이 점검하여 협력해야 한다. 나만 옳고 나만 건강하다는 인식에서 결국 이단/사이비가 출몰한다. 개교회가 모든 일, 큰일을 함으로 영향력을 키우려 하기 보다는 협력해서 노회/지방회, 총회/교단이 큰 일, 좋은 일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만족해야지 특정 목회자나 교회를 중심으로 출세기 해서는 안 된다.

더함공동체에서는 1년에 1회 '흠어지는 예배'를 드린다. 흠어지는 예배는 전 교인이 주일예배를 이웃교회 즉, 더함공동체가 아닌 “다른”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때 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몇 곳을 추천해 성도들이 선택하도록 한다. 물론, 추천되지 않은 교회를 참여하는 것도 자유다. 이를 통해 내 교회만이 “우리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웃교회, 형제교회에 예배에 참여하고 나면 더함공동체의 부족함도 알게되고, 공교회로 하나됨의 의미도 스스로 깨닫게 된다.

더함공동체는 2013년 12월 한 교회를 분립했다. 더함공동체의 분립 기준은 청장년 120명이 넘으면 분립준비위

원회를 구성하고, 200명이 되기 전에 분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사정이 생겨 분립하게 되었다. 함께 동역하던 전임목사가 자신이 꿈꾸는 목회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신자들의 신청을 받아 별도로 사랑방을 구성하고 교회 내 교회로 일정기간을 보냈다. 그리고 분립 파송할 때 교회 명칭도 운영도 모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더함공동체가 속해있는 '건강한작은교회연합'에 교회가 가입하고, 목회자는 '교회2.0목회자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교회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참고로 필자는 아세아연합신대원에서 신교학을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신대원에서 목회학(M.Div)을 공부해 '한국 독립교회및선교단체인합회'(KAICAM)에서 안수 받고 더함공동체도 이곳에 가입되어 있다. KAICAM이 공교회성이 약해서, 건강한 작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 2005년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을 결성해 활동하였으며, 2011년 모임에서 '교회2.0목회자운동'을 설립해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공교회성을 이루고 있다.

이상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 설명했다. 더함공동체는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단순함”(simple), “작음”(small), “더불어 함께”(with)를 핵심 가치로 지향하고 있다. 성경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실천하는 신앙, 무엇이 되고 무엇을 더 가지려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 비움, 낮아짐, 작음을 지향하는 자족적 신앙을 통해 더 많이 더불어 함께하는 신자, 더 많이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믿는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성, 일상의 제자도, 공공성, 공교회성을 지향하고, 단순함, 작음, 더불어 함께를 지향하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일정 수를 넘지 않는 작은교회를 의도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 교회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교회로 재편되어 다시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꿈꾸며 기도한다. 